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주리 · 허경호**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희대 강사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 연구는 최근 이혼이나 청소년 가출 등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지표라 볼 수 있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언론학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및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과 같은 성격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갖는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중 어떤 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해 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 성원들 간의 대화시간 등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 능력, 내적 통제성, 낙관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및 충동성,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부모의 충동성 순으로, 아버지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아내의 충동성 및 낙관성, 자녀와의 대화시간 순으로, 어머니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및 교육 수준 순으로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하여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격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및 대화시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키워드: 가족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시간, 부모의 교육 수준

* 이 연구는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2004년 11월 27일 광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julie9927@hanmail.net · 이 연구와 관련된 문의는 DrHur@khu.ac.kr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인간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가정으로부터 사회화를 시작한다.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단위가 되며 인간은 이 같은 최초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 구성원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족이라는 말의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이 같은 다양성은 곧 우리들 삶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가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동아 새국어사전, 2004)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랭(Laing, 1972, 3쪽)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져서 일정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계망(network)”이라 했으며, 크레머(Cramer, 1980, 43쪽)는 ‘과거의 역사와 당면한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호 연결된 교류관계(transactional relationship)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러너와 스페니어(Lerner & Spanier, 1978)는 또 가족을 “자녀의 사회화와 양육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위”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가정 내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생활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이룬 가정이라도 사랑만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들이 대부분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이고 크게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자녀의 양육방식에서는 물론 생활방식에서 의견 차이 및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차이나 갈등이 때로는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내의 언론학계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시켜 오고 있다(e.g., Fitzpatrick & Caughlin, 2002). 물론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가정학 분야에서 주로 가족 내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어 왔다(Broderick & Smith, 1979; Ferree, 1990; Nye & Berardo, 1981; Sprey, 1979). 그러나 최근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언론학적 시각으로 의사소통에 보다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Fitzpatrick & Caughlin, 2002). 이는 미국

내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변인들이 가족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정학 분야에서만 결혼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을 뿐 언론학 분야에서 의사소통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정학에서의 연구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예로서 최규련, 1984; 현은강, 1994) 연령, 교육 수준, 여성의 취업 여부, 성 역할, 가정소득, 자아개념 등과 같은 변인을 주변인으로 삼았으나 의사소통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최근 우리사회가 높은 이혼율, 청소년 가출, 가정불화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지표라 볼 수 있는 가족성원 간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언론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밝혀보는 것은 시의 적절한 주제이자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변인(내의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각각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들 중 어떤 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해 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자녀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등) 및 통계 변인으로 사용된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시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2. 이론적 논의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족간의 권력구조나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개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 심리관계가 포함된다. 즉, 가족관계란 넓은 의미

의 가족 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이다(양옥경, 2001). 많은 연구들이 가족관계 개념을 측정하고 사용해 왔으며, 가족관계의 특성인 응집성, 적응성, 결속력 등과 같은 조작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Olson, Sprenkle, & Russell, 1979).

대체로 기능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가족 구성원 모두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준다. 둘째, 가족 구성원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정받으며 안정감을 느낀다. 셋째,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함께 즐긴다. 넷째,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한다. 다섯째,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다. 여섯째, 가족 구성원 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가족원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는다(최희진·유영주, 1999). 따라서 행복한 가족관계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간의 심리적인 만족을 실현해나가는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가족간의 역동적인 상호과정으로서 연령, 교육 수준, 여성의 취업 여부, 성역할, 가정소득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연관이 있다(최규련, 1984; 현은강, 1994; Glenn & Weaver, 1981). 여기서 만족도란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인간이 갖는 심리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진 욕구의 정도로 나타나며 가족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곧 강화된 가족관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기능의 결속력과 적응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생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서 결속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Olson, Portner, & Lavee, 1985)로 정의되며, 가족의 정서적 결속감(emotional bonding), 가족 지지(supportiveness), 가족 경계(family boundary), 가족 여가 시간 및 친구관계(time & friends), 활동의 공유와 가족행사 참여(interests

& recreation)라는 다섯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이 당면하는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스타일, 지도력 유형, 가족 구성원들간의 타협 능력, 역할관계, 역할분담, 가족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이 포함된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을 갖는 가족관계 만족도는 의사소통 능력 및 개인의 성격(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및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2) 의사소통 능력과 가족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은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개념 자체도 대인 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관계적 능력(relational competence) 등으로 표현되어 같은 용어로 다른 현상을 표현하거나 다른 용어로 같은 현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Spitzberg & Cupach, 1989).

많은 학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위만(Wiemann, 1977)은 대학생들의 상호작용 행동을 녹화한 후 분석하여 의사소통 능력 척도(Communicative Competence Scale)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감정이입, 협력·지지, 행동적 융통성, 사회적 긴장 완화, 상호작용 관리와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듀란(Duran, 198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적응성 척도(Communicative Adaptability Scale)를 개발하여 사회적 침착성, 사회적 경험, 사회적 승인, 적절한 노출, 위트, 명확한 표현 등의 여섯 가지 구성요인을 확인했다. 또한 허경호(2003)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들이 특정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포괄적이면서도 설문 문항의 길이가 적절한

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하부 차원들은 (1) 자기노출(self-disclosure):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소스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자신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털어놓는 것, (2) 역지사지(empathy): 감정이입 및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나 상황 또는 감정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 (3) 사회적 긴장 완화(social relaxation): 일상의 만남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4) 주장력(assertiveness): 상대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5) 집중력(concentration): 개인이 자신의 대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인식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것, (6) 상호작용 관리(interaction management): 원만하면서도 편안한 상호작용 방식을 전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독점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제해 나가는 능력, (7) 표현력(expressiveness): 비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언어능력, (8) 지지(supportiveness):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의도로 표출되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 (9) 즉시성(immediacy):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행동, (10) 효율성(efficiency): 화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이는 노력과 시간, (11) 사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 기술이나 공손함을 반영하며 사회적 혹은 대인적 규범,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12) 조리성(conversational coherence): 대화에서 생성된 의견들이 의미 있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상호 연결되는 정도, (13) 목표 간파(goal detection):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화 상대의 목표를 알아차리는 과정 및 메시지와 행위의 전개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도, (14) 반응력(responsiveness): 의사소통을 할 때 타자 지향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것, (15) 잡음 통제력(noise control): 물리적 잡음, 심리적 잡음, 의미적 잡음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척도를 활용하여 한주리·허경호(2004)는 의사소통 능력이 성격과 더불어 아내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아내와 남편의 의사

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각자의 결혼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가족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e.g., Fitzpatrick & Caughlin, 2002). 예로서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관계 만족도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데, 부부간 관계 만족도에 있어 미국의 경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e.g., Knudson, Sommers, & Golding, 1980; Snyder, 1979).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 가족 구성원(부-모 및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성격과 가족관계 만족도

성격(personality)은 인간 행동을 논의할 때 개인들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성격변인들 중에서 학자들은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 사회성, 안정성, 책임성 등을 유용한 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오선주, 2002 ; 유성경·조하나, 2003 ; 이미숙,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성개념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예로써, 안선경·허경호, 2004; 한주리·허경호, 2004b), 언론학 분야에서도 다루어져 온 중요한 성격 변인으로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성격 변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1) 내외 통제성(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여 그 책임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등과 같은 자기 내적 요인에 돌리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운이나 재수 또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자기 외적 요인에 둔다. 이처럼 내외 통제성은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를 말한다(Rotter, 1966). 로터(Rotter, 1966)는 내외 통제성을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로 나누어 파악했는데, 어떤 행위의 원인이나 결과를 자신의 능력, 태도, 노력 등의 내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성향을 내적 통제(internal control)형이라고 하며, 자신의 행동과는 별개로 행운, 기회, 운명으로 돌리는 성향을 외적 통제(external control)형이라고 한다. 즉, 내재론자는 자신들이 본인에게 생기는 일을 자신의 책임하에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재론자는 자신이 자신의 삶에 생겨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운명이나 기회에 의해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믿는다(Daly & Diesel, 1992; 이훈구, 1997).

따라서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이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Phares, 1976), 내적 통제자들은 대인관계 행동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만족하고 이성과 더 자주 교제를 한다(Catania, McDermdtt & Wood, 1984). 부부관계에서도 주부의 내적 통제 경향이 클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종숙, 1988), 한주리·허경호(2004a)도 최근 아내와 남편의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본인의 결혼 만족도는 물론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 역시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근 이혼한 주부의 내외 통제성을 살펴본 결과 외적통제성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oherty, 1983).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적 통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이며, 어떤 상황에 접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2: 가족 구성원의 내적 통제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충동성

충동성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거나 느리게 내리는 사람에 대한 일관된 성향(Heckel, Allen, Roeder, Ryba, & Zook, 1989)으로 “빠르게 반응하며 행동하기 전에 사려성이 부족한 성향”(Dickman, 1990)을 지칭한다. 심리학에서 충동성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충동성이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격특질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일탈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이인혜, 2003). 충동성은 생각 없는 행동, 성급한 의사결정,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데 겪는 어려움 등과 같은 성향의 집합체로 정의된다(Patton, Stanford & Barratt, 1995). 또한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고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인 인성적 특질로 기술되기도 한다(이송선, 2000). 따라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자제력이 약하며 하고 싶은 대로, 혹은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한다.

바렛과 패턴(Barratt & Patton, 1983)은 충동성을 생각 없이 말하고,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으로, 아이젠크와 아이젠크(Eysenck & Eysenck, 1985)는 협의의 충동성에 모험성, 정열, 생동감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포함시켜 충동성의 개념을 확장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벌이는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한주리·허경호(2004a)는 최근 아내와 남편 간의 충동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충동성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부정확한 반응이 많이 나타날 것이며, 가족관계 만족도와도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3 : 가족 구성원의 충동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낙관성

낙관성이란 삶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개인의 일반적 성향(disposition) 또는 신념이며, 성격과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 중의 하나이다(Scheier & Carver, 1985, 1992). 낙관성(optimism)은 자기 삶의 중요한 차원에서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에 대한 기질적 경향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근래에는 긍정적인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로 간주된다(Scheier & Carver, 1985, 1992). 쉬어와 카버(Scheier & Carver, 1985)는 낙관성이 상황에 특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시간과 맥락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총체적 기대로서 성격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낙관성은 자기조절 행동(behavioral self-regulation)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정의되는 데 미래에 발생할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은 스스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과 비슷하다.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Bandura, 1977)가 제안한 개념으로 원하는 행동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이며,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또한 낙관성은 우울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자아 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박현숙, 2002).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낙관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패턴, 자성, 궁극적인 행동 등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가족관계 만족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4: 가족 구성원의 낙관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과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상호관련성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성격변인으로는 내외 통제성, 충동성 및 낙관성을 포함시켰다. 이들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만족할 만한 가족관계와 더 깊은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해 보고자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변인(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 중 어떤 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가?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설문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둘째, 성격을 측정하는 문항,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넷째,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대화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이 설문을 완성하는 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서울 지역의 결혼한 성인남녀 및 그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녀와 부모님의 설문지를 수거했다. 총 1,200부(자녀용,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400 세트)의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자녀 및 아버지와 어머니용 630부(210세트)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잘 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했다. 자녀 및 아버지와 어머니용 설문지는 총 501부(167세트)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녀의 연령은 17~29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연령은 19.38(SD=2.70), 이 중 남자 57명

(34.1%), 여자 110명(65.9%)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연령은 37~63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연령은 49.19(SD=4.24)였다. 어머니의 경우, 36~58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연령은 46.04(SD=4.23)였다. 자녀는 고등학생이 83명(49.7%), 대학생이 84명(50.3%)이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9명(5.4%), 중학교 졸업이 16명(9.6%), 고등학교 졸업이 75명(44.9%), 대학교 졸업이 52명(31.1%), 대학원 졸업이 15명(9.0%)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는 아버지가 전체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10명(6.1%), 중학교 졸업이 28명(17.2%), 고등학교 졸업이 90명(55.2%), 대학교 졸업이 31명(19.0%), 대학원 졸업이 4명(2.5%)으로 나타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대화시간¹⁾ 역시 가족간의 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

- 1) 자녀의 경우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 65명(39.2%)**, 10~20분 미만 44명(26.5%), 20~30분 미만 28명(16.9%), 30~40분 미만 10명(6.0%), 40분~1시간 미만 8명(4.8%), 1~2시간 미만 7명(4.2%), 2~3시간 미만 1명(0.6%), 3시간 이상 3명(1.8%)으로,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 17명(10.2%)**, 10~20분 미만 25명(15.1%), 20~30분 미만 **33명(19.9%)**, 30~40분 미만 13명(7.8%), 40분~1시간 미만 21명(12.7%), 1~2시간 미만 19명(11.4%), 2~3시간 미만 6명(3.6%), 3시간 이상 32명(19.3%)으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아내와의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 21명(12.7%)**, 10~20분 미만 26명(15.7%), 20~30분 미만 25명(15.1%), 30~40분 미만 21명(12.7%), 40분~1시간 미만 19명(11.4%), 1~2시간 미만 **28명(16.9%)**, 2~3시간 미만 7명(4.2%), 3시간 이상 19명(11.4%)으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 37명(22.3%)**, 10~20분 미만 **55명(33.1%)**, 20~30분 미만 37명(22.3%), 30~40분 미만 16명(9.6%), 40분~1시간 미만 10명(6.0%), 1~2시간 미만 7명(4.2%), 2~3시간 미만 2명(1.2%), 3시간 이상이 2명(1.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남편과의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 16명(9.8%)**, 10~20분 미만 23명(14.0%), 20~30분 미만 28명(17.1%), 30~40분 미만 26명(15.9%), 40분~1시간 미만 13명(7.9%), 1~2시간 미만 **29명(17.7%)**, 2~3시간 미만 13명(7.9%), 3시간 이상이 16명(9.8%)으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 9명(5.5%)**, 10~20분 미만 33명(20.1%), 20~30분 미만 **40명(24.4%)**, 30~40분 미만 28명(17.1%), 40분~1시간 미만 21명(12.8%), 1~2시간

여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

SPS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가장 깊은 관련을 갖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외에 통제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대화시간)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측정방법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속력과 적응력 정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가족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척도는 본래 포트너와 벨(Portner & Bell's study as cited in Olson, et al., 1985)이 1978년에 개발한 측정도구로 총 1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올슨, 포트너와 라비(Olson, Portner & Lavee's study as cited in Olson, et al., 1985)에 의해 50문항에서, 30문항(1984년)으로 수정되었고 1985년에 20문항으로 3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및 표준화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올슨, 포트너와 라비(1985)의 척도를 김윤희(1989)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했다.

총 20문항의 가족관계 만족도 척도는 가족 기능진단과 가족유형분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각의 진술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를 양극단으로 하는 라이커트형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체항목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다. 20문항 중 10개의 문항은 결속력을, 또 다른 10개의 문항은 적응력을 반영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로 표현된 신뢰도는 자녀의 경우 .86(M=3.23, SD=0.51), 어머니의 경우 .95(M=3.39, SD=0.78),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 .82(M=3.33, SD=0.44)였다.

미만 16명(9.8%), 2~3시간 미만 9명(5.5%), 3시간 이상이 8명(4.9%)으로 나타났다.(굵은 글씨는 최빈치(mode)를 나타냄.)

(2) 의사소통 능력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의사소통 능력척도는 역지사지(empathy), 자기노출(self-disclosure), 사회적 긴장 완화(social relaxation), 주장력(assertiveness), 집중력(concentration), 상호작용 관리(interaction management), 표현력(expressiveness), 지지(supportiveness), 즉시성(immediacy), 효율성(efficiency), 사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 조리성(conversational coherence), 목표 간파(goal detection), 반응력(responsiveness), 잡음통제력(noise control) 등 총 15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1개의 진술문으로 되어 있다. 한주리·허경호(2004)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 척도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는 5점의 라이커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부정문항을 역으로 코딩한 후 전체항목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로 계산된 신뢰도는 자녀의 경우 .77($M=3.52$, $SD=0.41$), 어머니의 경우 .74($M=3.54$, $SD=0.41$), 아버지의 경우는 .87($M=3.51$, $SD=0.49$)로 나타났다.

(3) 내외 통제성

내외 통제성은 로터(Rotter, 1966)가 개발한 29문항의 내외 통제성 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를 바탕으로 차재호·공정자·김철수(1973)가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외 통제척도를 사용했다. 허구문항 6개를 제외한 15개 문항은 각각 내적·외적 통제성을 반영하는 두 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에 해당하는 진술문만을 합산하여 지수로 삼았으며, 내적 통제성 점수범위는 0~15점이다. 차재호·공정자·김철수(1973)가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자녀는 .60($M=8.70$, $SD=2.64$), 어머니는 .63($M=8.67$, $SD=2.98$), 아버지는 .60($M=10.39$,

SD=0.27)이었다.

(4) 충동성

충동성은 아이젠크(Eysenck, 1984)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박정은(2001)이 16문항으로 줄인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때때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버린다’, ‘지킬 수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는 참기 힘들다’, ‘가끔 나도 모르게 고향을 지를 때가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라이커트 척도상에 나타내도록 하여 측정했다. 각 항목들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으며, 높은 점수가 높은 충동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자녀가 .86(M=2.97, SD=0.69), 어머니는 .93(M=2.57, SD=0.79), 아버지는 .89(M=2.69, SD=0.62)이었다.

(5)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환(1999)이 쉬어와 카버(1985)가 개발한 LOT(Life Orientation Test)를 국내 상황에 맞게 개발한 척도를 활용했다. 이 척도는 총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문항은 긍정적인 성향을, 다른 세 개는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긍정적인 성향은 ‘나는 대체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편이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언제나 낙관적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보통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성향은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예감은 항상 맞는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데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환(1999)은 크론바흐 알파 값을 .64로 밝히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라이커트형 척도상에 나타내게 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낙관성을 나타내도록 했으며, 각 항목들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다

(M=3.40, SD=.55).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흐 알파는 자녀가 .73(M=3.47, SD=0.61), 어머니는 .77(M=3.36, SD=0.76), 아버지는 .60(M=3.32, SD=0.55)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은 가족 구성원(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능력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통제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대화 시간)과 다른 주 연구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 뒤따르는 분석에서 이들의 통제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 통제 변인과 주 연구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피어슨 상관관계계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자녀, 부모의 통제변인(성별, 연령, 교육 및 대화시간)과 주요 변인들과의 피어슨 상관관계

	자녀					아버지				어머니			
	성별	연령	교육	아버지와 대화 시간	어머니와 대화 시간	연령	교육	배우자와 대화 시간	자녀와 대화 시간	연령	교육	배우자와 대화 시간	자녀와 대화 시간
의사소통 능력	0.13	0.08	0.16*	0.23**	0.20*	0.02	0.22**	0.16*	0.23**	0.06	0.21*	-0.10	0.17
내적 통제성	-0.03	0.13	0.19*	0.04	-0.02	0.02	0.27***	0.05	0.07	0.01	0.10	0.06	0.01
충동성	-0.12	-0.11	-0.16*	-0.07	-0.09	0.08	0.11	0.06	0.10	0.03	0.01	-0.01	0.01
낙관성	0.07	0.06	0.20*	0.03	0.03	0.05	0.18*	0.09	0.14	-0.04	0.10	0.10	0.20*
가족관계 만족도	0.07	-0.03	-0.00	0.33***	0.22**	0.12	0.13	0.18*	0.23**	-0.02	0.21*	0.07	0.09

* p < .05, ** p < .01, *** p < .001; two-tailed.

자녀의 경우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몇몇 통제변인들이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성격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r = .16, p < .05$), 내적 통제성($r = .19, p < .05$) 및 낙관성($r = .20, p < .05$)이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r = .23, p < .01$)과 가족관계 만족도($r = .33, p < .001$)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r = .20, p < .05$)과 가족관계 만족도($r = .22, p < .01$)가 높았다. 아울러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충동성($r = -.16, p < .05$)이 낮았다. 아버지의 경우,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r = .22, p < .01$), 내적 통제성($r = .27, p < .001$) 및 낙관성($r = .18, p < .05$)이 높았고, 아내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능력($r = .16, p < .05$) 및 가족관계 만족도($r = .18, p < .05$)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r = .23, p < .01$)과 가족관계 만족도($r = .23, p < .01$) 역시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r = .21, p < .05$)과 가족관계 만족도($r = .21, p < .05$)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낙관성($r = .20, p < .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 변인들이 뒤따르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녀의 경우 교육 수준,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아버지의 경우 교육 수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어머니의 경우 교육 수준과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1)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1)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과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설 1>이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과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통제변인들(즉, 자녀의 경우 교육 수준, 부모와의 대화시간, 아버지의 경우 교육 수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 어머니의 경우 교육 수준과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통제한 후 자녀와 아버지는 3차 부분 상관관계 분석을, 어머니는

2차 부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가설 1>은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의 부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변인들과
자녀,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부분 상관관계

	자녀					아버지					어머니				
	가족 관계 만족도	의사 소통 능력	내적 통제 성	충 동 성	낙 관 성	가족 관계 만족도	의사 소통 능력	내적 통제 성	충 동 성	낙 관 성	가족 관계 만족도	의사 소통 능력	내적 통제 성	충 동 성	낙 관 성
자녀 가족 관계 만족도	-	.40***	.17	-.20*	.19*	.41***	.10	.04	-.27**	.05	.18*	.12	.03	-.22*	.05
아버지 가족 관계 만족도	.41***	.26**	.06	-.04	.13	-	.46***	.22*	-.27**	.15	.25**	.25**	.01	-.36***	.13
어머니 가족 관계 만족도	.18*	.13	.12	-.03	.17	.25**	.12	.13	-.07	-.01	-	.21*	.07	-.01	.08

* p < .05, ** p < .01, *** p < .001; two-tailed.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관계 만족도($r = .40, p < .001$)와는 물론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r = .26, p < .01$)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아버지의 의사소통 능력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 = .46, p < .0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 = .21, p < .05$)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r = .25, p < .01$)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녀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가족일수록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도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2>는 가족 구성원의 내적 통제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

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의 <표 2>에서처럼, 아버지의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22, p <.05$)가 높았다. 그러나 자녀 및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같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3>은 가족 구성원의 충동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위의 <표 2>에서처럼, 자녀의 충동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20, p <.05$)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충동성 역시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27, p <.01$)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r=-.27, p <.01$)와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충동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01, p =.91$)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r=-.36, p <.001$)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r=-.22, p <.01$)와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충동성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녀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동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4>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낙관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위의 <표 2>에서처럼, 자녀의 낙관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r=.19, p <.05$)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도 역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낙관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가족성원의 인구통계학적 및 통제 변인, 의사소통 능력과 성격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

<연구문제 1>은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갖는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주 연구변인으로 삼았던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 변인 외에 앞서 이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교육 수준 및 대화시간을 추가했다. 이 변인들이 상호 연관되어 가족관계 만족도와 맺는 관련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자녀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및 통제변인에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교육 수준,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포함시켰다. <표 3>은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회귀 분석 결과를 각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3>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들	Beta값 (Standardized β weights)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32***	.24***	.22***	.20**	.19**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36***	.35***	.35***	.34***
본인의 충동성			-.26***	-.24***	-.22***
아버지의 충동성				-.17**	-.15*
어머니의 충동성					-.13*
R제곱	.10	.23	.30	.33	.35
R제곱변화치	.10	.12	.07	.02	.02
F	19.54	25.12	23.66	20.09	17.24
df	1/165	1/164	1/163	1/162	1/161
유의확률(p)	.001	.001	.001	.001	.001

* p < .05, ** p < .01, *** p < .001; two-tailed.

분석결과, 다섯 개의 변인, 즉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beta=.34), 본인의 충동성(beta=-.22), 아버지와의 대화시간(beta=.19), 아버지(beta=-.15) 및 어머니의 충동성(beta=-.13) 순으로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변량의 35%를 설명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 부모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통제변인에 앞선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던 아버지의 교육 수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포함시켰다. <표 4>는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회귀 분석 결과를 각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4>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들	Beta값 (Standardized β weights)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녀와의 대화시간	.23**	.12	.12	.13*	.14*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46***	.40***	.38***	.37***
본인의 충동성			-.16*	-.14*	-.11
아내의 충동성				-.17*	-.22**
아내의 낙관성					.14*
R제곱	.05	.25	.28	.30	.32
R제곱 변화치	.05	.20	.02	.02	.01
F	9.42	27.83	20.95	17.87	15.39
df	1/164	1/163	1/162	1/161	1/160
유의확률(p)	.01	.001	.001	.001	.001

* p < .05, ** p < .01, *** p < .001; two-tailed.

분석결과, 네 개의 변인, 즉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beta=.37), 아내의 충동성(beta=-.22), 자녀와의 대화시간(beta=.14), 아내의 낙관성(beta=.14) 순으로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 변량의 32%를 설명했다. 그러므로 아버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아내가 낙관적일수록 아버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아내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통제변인에 앞선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어머니 자신의 교육 수준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포함시켰다. <표 5>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회귀 분석 결과를 각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5>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들	Beta값 (Standardized β weights)	
	1단계	2단계
본인 교육 정도	.20**	.15*
본인 의사소통 능력		.23**
R제곱	.04	.10
R제곱변화치	.04	.05
F	7.23	8.62
df	1/160	1/159
유의확률(p)	.01	.001

* p < .05, ** p < .01, *** p < .001; two-tailed

분석결과, 본인의 교육 수준(beta=.15) 및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beta=.23)이 가족관계 만족도 변량의 10%를 설명했다. 따라서 어머니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깊은 관련을 갖는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 의사소통 능력이 구성원 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격보다 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가 높은 이혼율, 청소년 가출, 가정불화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성원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언론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밝혀보는 것은 시의 적절한 주제이자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능력 및 성격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 및 통제변인(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대화시간)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의사소통 능력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울손과 그의 동료들(1985)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 유대감(emotional

bonding)을 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지지(supportiveness)해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감지하면서(family boundary), 가족들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고(time & friends), 가족활동을 공유하며 가족행사 참여(interests & recreation) 등 가족 구성원들이 결속력(Olson, Portner, & Lavee, 1985)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간의 타협 능력, 역할관계, 역할 분담, 가족 규칙의 명시성을 높이는 등 가족이 당면하는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family adapt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다양한 결혼생활에서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Notarius & Vanzetti, 1983)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가 자기 자신이나 상황 또는 감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감정이입(empathy)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통하여 부부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의사소통의 효율성, 인지적 정확성, 예측의 정확성 등으로 측정된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관계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Burleson & Denton, 1997)를 지지해 주는 것이며 관계 만족도에 의사소통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 연구결과(Kelly, Fincham & Beach, 2003)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족 간의 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기 노출, 주장력, 즉시성(immediacy), 효율성(efficiency), 사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 등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격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적 통제성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자녀, 아버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 및 어머니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었으나 아버지

의 내적 통제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 내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데 내적 통제 성향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며 매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Miller, Lefcourt, Holmes, et al., 1986)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충동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아버지의 충동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충동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동성이 행동하기 전에 사려깊이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성향(Dickman, 1990)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일탈행동을 유발(이인혜, 2003)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낙관성의 경우, 자녀의 낙관성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낙관성은 시간과 맥락을 초월하여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기대로서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에 강력한 영향(Scheier & Carver, 1985)을 미치는 성향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변인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인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 및 통제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행복한 부부일수록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으며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

(Hicks & Platt, 1970)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역으로 미국 NCA에서 행했던 여론 조사 결과(Starch, 1998)²⁾에서 심각한 관계의 단절이유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44%)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과 연결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가족관계 만족도 관련 통제변인과 주변 연구변인들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 주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먼저 자녀의 경우 교육 정도는 의사소통 능력, 내적 통제성 및 낙관성과,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가족관계 만족도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과 충동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내적 통제성 및 낙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시간 길수록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은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교육 정도는 의사소통 능력, 내적 통제성 및 낙관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은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내적 통제성 및 낙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능력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말한다. 어머니의 경우 교육 정도는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낙관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자녀

2) 결혼 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44%), 금전 문제(38%), 시댁 및 친정식구들의 개입(14%), 성문제(12%), 현 결혼생활 이전의 타인과의 관계 또는 결혼(9%), 자녀 문제(7%)로 나타나 부부간의 관계 단절의 첫 번째 원인이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제로 밝혀졌다.

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낙관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자녀 및 아버지의 경우 모두 대화시간이 중요한 변인으로 떠올랐는데 이는 가족성원들끼리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시간이 길수록 부부가 결혼생활에 더욱 만족한다는 연구결과(유양숙, 1999)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대화시간을 가족관계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 연구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족성원들간의 대화를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화주제 등 질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내외 통제성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자녀 및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각각 .60과 .63, .60, 아버지의 낙관성은 .60으로 낮아 연구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설문지 수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편의표집(convenient sampling)을 한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가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족 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3자 관계(a triad)로 묶어 통계 처리(triad analysis)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가족성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격이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격보다 의사소통 능력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들이 결속력과 적응력을 갖는 데 있어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불화, 청소년 문제, 아버지의 위상 등 한국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성원들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기초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을 통해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 만족

도를 증진하는 데 언론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희 (1989). 부부관계 · 부모-자녀의사소통 ·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환 (1999). 학업적 꾸물거림에서 실패공포가 과제제출 행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아 새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Electronic version] (n.d.) Retrieved September 7, 2004 from http://krdic.naver.com/search.naver?query=%B0%A1%C1%B7&mode=srch_ke.
-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2).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권 3호, 352~362.
- 안선경 · 허경호 (2004). 개인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321~345.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호, 119~147.
-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0호, 201~215.
- 유성경 · 조하나 (2003). 낙관성 수준, 상황, 대상에 따른 대인관계도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권 3호, 567~580.
- 이미숙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4호, 145~161.
- 이송선 (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 (2003). 기능적 및 역기능적 충동성과 인지과제 수행간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1권 1호, 67~90.

- 이종숙 (1988). 주부의 내외 통제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지사.
- 차재호·공정자·김철수 (1973). 내외 통제척도 작성.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연구노우트』, 2권 19호, 263~271.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2권 2호, 97~107.
- 최희진·유영주 (1999). '가족기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Tavitian, Lu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척도(FFS)에 기초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권 1호, 57~71.
- 한주리·허경호 (2004a).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방송학보』, 18권 4호, 148~190.
- 한주리·허경호 (2004b). 휴대전화 중독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138~165.
- 허경호 (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380~408.
- 현은강 (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NJ: Earlbaum.

Burleson, B. R. (1992). Taking Communication Seriously. *Communication Monographs*, 59, 79~86.

Broderick, C., & Smith, J. (1979).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112~129, New York: Free Press.

Catania, J. A., McDermott, L. J., & Wood, J. A. (1984). Assessment of Locus of Control: Situation Specificity in the Sexual Context. *Journal*

- of Sex Research*, 20, 310~324.
- Cramer, C. H. (1980). *Becoming a Family Therapist*.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Daly, J. A., & Diesel, D. A. (1992). Measure of Communication-related Personality Variables. *Communication Education*, 41, 405~114.
- Dickman, S. J.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5~102.
- Doherty, W. J. (1983). Impact of Divorce on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in Adult Woma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834~840.
- Duran, R. L. (1983). Communicative Adaptability: A Measure of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31, 320~326.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A Natural Science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Ferree, M. M. (1990).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66~884.
- Fitzpatrick, M. A., & Caughlin, J. P. (2002).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M. L. Knapp & J. A. Daly(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3rd ed.). Thousand Oaks, CA: Sage, 726~777.
- Glenn, N. D., & Weaver, C. N. (1981).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May), 269~280.
- Heckel, R. V., Allen, S. S., Roeder, G, Ryba, P. & Zook, W. (1989), Normative Data on the Kagan 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 for Adult Male Incarcerat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155~160.
- Hicks, M. W., & Platt, M. (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53~574.
- Kelly, A. B., Fincham, F. D., & Beach, S. R. H. (2003). Communication Skills in Couples: A review and discussion of emerging perspectives.

- In J. O. Greene, & B. R. Burlison(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 Mahwah, NJ: Lawrence Erlbaum. 723~751.
- Knudson, R. M., Sommers, A. A., & Golding, S. I. (1980).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odes of Resolution o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751~763.
- Laing, R. D. (1972). *The Politics of the Family*. New York: Vintage Books.
- Lerner, R. M., & Spanier, G. B.(eds.). (1978). *Child Influences on Marital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Miller, P. C., Lefcourt, H. M., Holmes, J. G., Ware, E. E., & Saleh, W. E. (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61~169.
- Notarius, C. I., & Vanzetti, N. A. (1983). The marital agendas protocol. In E. Filsinger(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A Sourcebook for Family Therapy*. Beverley Hills, CA: Sage, 209~227.
- Nye, F. I., & Berardo, F. M. (1981). Introduction. In F. I. Nye & F. M. Berardo(eds.), *Emerging Conceptual Frame Works in Family Analysis*. New York: Praeger, 1~9.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5.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768~774.
-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Scheier, M., & Carver, C.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 Carver, C.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91~228.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Sprey, J. (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ew York: Free Press, 130~159.
- Starch, R. (1998). How Americans Communicat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s Survey. Retrieved September 2, 2004, from http://www.natcom.org/research/Poll/how_americans_communicate.htm.
- Wiemann, J. M. (1977).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195~213.

(최초 투고 2004.12.01., 최종원고 제출일 2005.01.07.)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Communication Competence, Locus of Control, Impulsivity, and Optimism on Thei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Julie Han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Gyeong-Ho Hur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explain how family member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ty such as locus of control, impulsivity, and optimism influenced thei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addition, we examined which variables among these would predict highly the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by conducting the regression analyses. We also included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of offsprings, age and education level, and conversation time among family members as the control variables that may have influenced the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nalness, and optimism were, the higher the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whereas the higher the impulsivity was the lower the relationship was. For offspring, her/his ow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mpulsivity, the conversation time with her/his father, and the impulsivity of the parents in order were the best predictors of the thei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or father, his own communication competence, wife's impulsivity and optimism, and the conversation time with his offsprings in order predicted hi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or mother, her ow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ducation level were the strongest predictors of h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sults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family member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versation time among themselves as well as their personality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thei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Last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locus of control, impulsivity, optimism, conversation time among family members, parents' education level.